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인가계 유형에 따른
경제구조 분석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서지수

노인가계 유형에 따른
경제구조 분석

허 경 옥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서지수

인 준 서

서지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가계의 연령과 동거유형유형에 따른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각 유형의 경제구조의 차이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를 연령에 따라 초기노인집단(60-64세), 중기노인집단(65-70세), 후기노인집단(70세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동거유형에 따라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친척으로 구성된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원으로 구성된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원으로 구성된 남성노인가계의 6개 집단으로 노인가계를 분류하여 경제구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구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경제상태를 결정짓는 소득, 대출액, 소비·지출에 관련된 객관적 경제지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 가구주의 연령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노인가계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노인가계의 연령과 동거유형에 따른 특성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통계청의 2004년도 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카이검증, One 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노인가계의 연령과 동거유형에 따른 경제구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 검증의 분석결과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노인연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득은 초기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부채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중기노인가계에서 그 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 검증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부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대출액 변수에 대

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노인 연령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의 규모 분포를 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육비, 외식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지출 규모를 보였다.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규모를 나타내어 노인가계의 앵겔계수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의 경우 초기노인가계에서 월평균 220,815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기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은 소비지출 규모를 보여 노인가계의 앵겔지수가 높음을 시사하였으며 그 중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계에서 가장 많은 식료품비를 지출하였다. 외식비의 경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의 경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열수도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및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노

인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는 친척 노부부가계에서 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는 노인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비는 노인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와 광열수도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피복및신발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비는 노인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교양오락비는 노인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 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는 노인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냈다.

후기노인가계는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초기노인가계와 중기노인가계에서와는 달리 보건의료비의 경우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와 기타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식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

다. 주거비는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열수도비는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복및신발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비는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교육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통통신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소비지출은 노인 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가계의 연령과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노년기를 맞게 될 중·장년층의 노후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올바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과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노인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구조가 취약해 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생애주기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석 될 수 있으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중·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장려정책을 통한 노후보장 기반 모색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 욕구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하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제안한다.

둘째, 노인가계의 가계유형에 따른 가계의 경제구조 파악을 통해 각 가계가 가지는 경제구조의 특성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계유형에 따라 각 가계의 경제구조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재정관리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계는 자신이 속한 가계의 경제적 취약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가계의 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수급정책의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가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노인가계의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인가계를 위한 경제적 수급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다양화되는 노인가계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공적차원에서의 연금 및 세제지원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온 노인가계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경제구조를 분석한 연구와는 달리 노인가계를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연령과 동거유형별로 노인가계를 구분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노인가계의 다양한 경제구조 특성을 파악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표성 있는 전국규모의 자료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노년기를 맞게될 중·장년층에게 노후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적차원에서의 연금 및 세제지원책과 관련된 경제적 수급정책에 대한 유용한 기초정보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 더불어 올바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미래 노인가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7
1. 노인가계의 정의	7
2.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10
3.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13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문제	20
2. 조사자료 및 조사대상	21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22
1)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24
2) 조사대상가계의 경제적 특성: 소득, 부채, 소비지출변수	24
4. 자료분석방법	25
IV. 연구결과 및 분석	26
1. 조사대상가계의 구성비	26
2.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8
3. 조사대상 가계의 경제구조 차이 검증	36
1)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가계 경제 수지 차이 검증	36

2)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39
(1)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39
(2)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42
(3)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44
3)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	46
4)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	49
(1)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49
(2)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52
(3)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55

V. 결론 및 논의 -----	58
------------------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1> 노인가계의 동거유형 -----	23
<표2> 노인가계의 연령별 빈도 -----	26
<표3> 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빈도 -----	27
<표4> 노인가계의 연령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	29
<표5>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1
<표6>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3
<표7>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35
<표8> 노인가계의 연령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	38
<표9>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	41
<표10>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	43
<표11>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 수지 차이검증 ---	45
<표12> 노인가계의 연령별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	48
<표13>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	51
<표14>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	54
<표15>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	57

I. 서 론

1. 문제제기

현대사회는 노화와 장수에 대한 의학적, 생리적 규명과 함께 무병장수와 같은 수명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 노년기의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만혼이 늘어남으로 출산을 저하와 동시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UN은 국가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 14%이상일 때를 고령사회, 20%이상일 때를 초(超)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04년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 2050년에는 37.3%에 이르러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8년 14.3%, 2026년 10.8%, 2050년 38.2%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25년에는 29.1로 2050년에는 69.4로 이를 것이고,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는 34.3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168.9 그리고 2050년에는 41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5).

이렇게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빠른 팽창은 노인부양의 문제를 야기 시키며, 노인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체 의식을 가지고 가꾸어 나갈 능력의 부재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후기 노인의 증가는 연금 수급기간의 연장, 노인 의료비의 증대, 노인부양의 부담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

문에 요즈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모선희, 강지현, 2002).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흔히 사고(四苦)라고 하는 빈곤의 문제, 노화 및 신체기능저하로 인한 건강문제, 역할의 상실문제,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무관심으로 인한 고독문제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문제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이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나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소득의 감소로 인해 활용 가능한 경제 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에 있어 파생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조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적 대책은 자녀나 친척의 보조였으나 핵가족의 가속화와 개인의 삶과 인격을 우선시 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증가함에 따라 자식의 부모부양의식은 더욱 더 약화될 것이다.

통계청의 2004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조사결과 ‘가족이 부양해야한다’ 라는 견해가 70.7%로 1998년 89.9%에 비해 19.2%p 낮아졌으며, ‘스스로 해결한다’ 라는 견해는 9.6%로 1998년 8.1%에 비해 1.5%p 높아졌다. 또한 향후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묻는 응답에도 45.8%가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해 고령 인구의 증가와는 반대로 부모를 부양하려는 자녀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40.1%로 나타났다. 남녀별 비율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는 남자가 72.1% 여자가 44.2%로 나타났으며, ‘자녀 또는 친척’에게 의지하는 경우는 여자가 51.0% 남자가 2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에 대한 ‘만족’은 10.4%, ‘보통’은

37.4%, ‘불만족’은 52.2%로 나타나 1998년 경제위기 이후인 1999년보다도 ‘만족’과 ‘보통’은 각각 0.2%p, 3.3%p 낮아진 반면 ‘불만족’은 3.5%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소득 만족 수준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4).

유우정(2006)은 55세 이상 노인가구의 36%는 매달 소득의 9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소득이 중단될 경우 1개월 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는 10 가구 중 3가구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제시 하였다. 또 월평균 가계소득 대비 월평균보험료 비중을 뜻하는 위험대비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는 8.93%에 불과, 전체 노인가구의 91% 이상이 경제적 위험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재정비율 및 재정비율 준거기준을 사용한 논문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생활비를 월평균가계소득으로 나눈 가계수지지표가 준거기준인 0.9 이하, 즉 월평균 생활비가 소득의 90% 이하인 가계는 전체의 64%로 분석됐다. 나머지 36%에 달하는 가계는 매달 소득의 9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 여유 소득 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금융자산을 월평균가계소득으로 나눈 비상자금지표 준거기준(1 이상)을 만족하는 가구비율은 전체의 25.70%에 불과, 노인가구 4가구 중 3가구는 소득이 중단 될 경우 1개월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업사회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은퇴제도가 현재보다 평균수명이 낮을 때 생겨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은퇴 후 상당수의 기간 동안 직업 없이, 물질적 여유도 없이 생활해야 하는 노후의 생활이 부담스러워 졌으며, 아직까지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제도 미발달로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연령과 은퇴시기 사이의 일정한 시간적 격차가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은퇴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위기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택룡, 1994; 양정

선, 김영순,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고령화사회로의 전이에 따른 노인가계 스스로의 계획적이고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노년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에 대한 제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노인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해 주는 소득 및 소비지출의 흐름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가계내에서 보여지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노인을 단순히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Quinn, 1987). 이러한 주장은 노인가계내에서도 가계의 특성에 따라 소득과 소비지출패턴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성영애, 양세정, 1997).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비교한 연구(문숙재 외 2인, 1996; 성영애, 양세정 1997; 임정빈, 김윤희, 2000; 김영숙, 2002)와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연구(이희숙, 신상미, 2003; 김연정, 1998) 등이 있으며,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를 불평등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연구(성지미 외, 2001)와 재무계획 수립 및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상태 분석(김순미, 1998; 김연정, 1997)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나 노인가계를 동질적 집단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노인가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가계를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연령과 동거유형별로 노인가계를 구분하여 경제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노인가계의 다양한 경제구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각의 특성을 갖는 노인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노년기를 맞게될 중·장년층에

게 노후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차원에서의 연금 및 세제지원책과 관련된 경제적 수급정책에 대한 유용한 기초정보 자료로 제공될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더불어 올바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미래 노인가계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가계의 연령과 동거 유형유형에 따른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른 각 유형의 경제구조의 차이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를 연령에 따라 초기노인집단(60-64세), 중기노인집단(65-70세), 후기노인집단(70세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동거유형에 따라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친척으로 구성된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원으로 구성된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원으로 구성된 남성노인가계의 6개 집단으로 노인가계를 분류하여 경제구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구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경제상태를 결정짓는 소득, 부채, 소비·지출에 관련된 경제지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 가구주의 연령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노인가계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넷째, 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온 노인가계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경제구조를 분석한 연구와는 달리 노인가계를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연령과 동거유형별로 노인가계를 구분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노인가계의 다양한 경제구조 특성을 파악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표성 있는 전국규모의 자료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노년기를 맞게될 중·장년층에게 노후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적차원에서 의연금 및 세제지원책과 관련된 경제적 수급정책에 대한 유용한 기초정보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 더불어 올바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미래 노인가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가계의 정의

노인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용이하지 않으나 노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인에 관한 규정에는 특정한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통합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으로 정의 한다(한국노년학회). 연령에 따른 노인의 구분을 살펴보면, UN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대비 65세 인구가 7%에서 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대비 65세 인구가 14%에서 20%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20%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출생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산술적으로 산출한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해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한다. 역연령에 의한 규정은 입법적,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였다(송순영, 1999).

미국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은 55세 이상을 구분점으로 사용하

고, 다음의 4개 세분집단으로 나눈다. 즉, 55-64세의 'the olders', 65-74세의 'the elders', 75-84세의 'the aged' 그리고 85세 이상을 'the very old'로 구분한다. Neugarten은 55-74세의 노인을 연소노인(young-old), 그리고 75세 이상의 노인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구분하였으며, Brody는 60-64세 노인을 연소노인(young-old), 65-74세 노인을 중고령노인(middle-old), 그리고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분류하고 있다(장인협, 최성재, 2003; 권중돈, 200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으로 볼 때 노인은 60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로연금 제도나 각종 경로우대제도 또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은효(2007)는 노인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지역과 사회문화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60세를 전후한 시기로 보는데, 이는 대체로 일반기업체의 경우 퇴직연령을 55세로, 공무원의 경우 60세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전통적으로 60세가 환갑인 점 등에서 사회적으로 노령기에 접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도상에서 노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제56조제1항), 노령연금지급금액도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다.(제57조)”따라서 위법에서는 ‘노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법제 2조, 동법시행령제2조).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아동, 60세 이상의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인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에서 ‘65세이상인 자’는 ‘노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구분을 살펴보면 양세정·성영애(2001), 성영애·양세정(1997), 김영숙(2002), 박진영(2007), 오찬옥 외2인(2000) 은 노인가구를 60세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순희·김현정(2001), 이영숙(2007), 김순미(1998), 문숙재외 2인(1996), 은 노인가구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제도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회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60세이상을 노인층으로 나누는 기준을 삼고 있으며(통계청, 2005), 사회적으로도 퇴직 정년을 정하는 기준으로 60세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 (고철기 외, 1992)에 따라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를 노인가계로 정의하고, 또한 역연령에 따른 구분에 따라 60-64세 노인가구주 가계를 ‘초기노인가계’, 65-70세 노인가구주 가계를 ‘중기노인가계’, 7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계를 ‘후기노인가계’로 정의하였다.

2.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을 통해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재정적준비 및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재정상태분석은 일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 등의 절대액에 기초한 방법과 타인이나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의한 소득분배 분포를 통한 상대적 기준의 방법이 있다(강이주, 1999).

가계의 소득은 일정기간 내에 가계로 유입되어 가계의 실질적인 자산을 증가시키는 화폐가치의 총량으로서 가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투입 요소로서,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한다. 이는 자산으로 축적됨으로써 미래의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재창출과 경제구조현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소득은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투입 요소 중의 하나로서 가계구성원의 욕망 충족과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소비용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소득은 자산으로 축적되어 그 자체가 스스로 또 다른 소득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계의 미래 위험을 감소시키고 장래의 생활을 보장하는 가치 축적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이승신 외, 2003). 가계소득은 가족구성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족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원의 목표달성 수단이 되는 가계소득 측정을 토대로 가계구성원들이 자원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인지하며, 현재의 가계 경제수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수준에 대한 가계소득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구조에 대한 부담이나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가계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다시 비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시장노동에 참여한 구성원이 고용인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화폐로서, 임금 혹은 기업가가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

득을 포괄하고 있다. 비근로소득인 재산소득은 저축이나 채권, 투자 등에 대한 배상금이나 이자 등을 포함하는 금융소득, 소유토지로부터 임대료로 발생하는 부동산소득, 지대 등이 이에 해당하며 또한 이전소득은 정부보조의 복지수당이나 연금, 상속이나 증여, 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소득분포를 보면, 1999년 월평균 25만원 이하가 전체 노인의 54%로 나타나 빈곤선 이하이거나 빈곤선을 약간 상회한다(정경희, 1998; 김윤희 2002년 재인용).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1998년 30대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이 88.3%로 가장 높은 반면, 55세 이상의 경우는 76.1%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사업 및 부업소득과 이전소득은 4.1%를 차지하여 20대가 약 1%미만-2%정도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였다(통계청, 1998). 즉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아지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김두섭, 2001).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원은 가구의 경제복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평가지표는 소득이지만 어떤 소득을 지표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며, 경제적 지위의 유지능력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수 있다(권문일, 1997). 노인가구의 주된 노후소득원천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지만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의 계층간 분포가 불평등하고 노인집단간 경제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권문일, 1997). 서구 선진국에서 중요소득원인 재산소득은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노후소득원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주로 정기적 소득원을 상실하였을 때, 근로소득외의 기타소득원천에서 이전소득이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현실적으로 노후소득보장책의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공적부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노인가구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소득액수의 변동이 심하므로 소득만으로 노인가구의 경제구조를 측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최윤지, 최현자, 1998; 강이주, 1999 재인용).

가계는 획득한 소득 혹은 자산을 주 근거로 가계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의 실현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행동영역에는 재정적인 요구가 충족 되어야 한다. 가계의 가장 큰 지출은 가계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월평균 소비지출비로서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내구재, 통신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계소비지출은 총지출에서 구성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며, 매우 안정적인 지출이므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계청(2003)은 소비지출은 가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로서 각종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로 구성된 10대 비목 지출의 합계라 규정하였으며, 황은애·이승신(1999)은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패턴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비지출을 9대비목인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로 지정하였다.

노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시 소비지출 분석은 경제상태 및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이것으로서 가구의 소비양상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소비지출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안정적인 지표로서, 가구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Friedman, 1957; Garner, 1987; 김연정 1998년 재인용). 또한 소비지출을 비목별로 분석함으로써 가구의 소비범주에 따른 지출분포정도 및 구체적인 가계구조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3.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예측되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노인가계를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정영숙, 2000; 김영숙, 2002에서 재인용).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경제구조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비교 분석한 연구와 노인의 취업유무, 연령, 동거집단에 따른 가계유형 등에 따라 노인가계를 분리한 집단간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숙재 외 2인(1996)은 1993년도 한국가구조사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55세 이상인 노인가계와 55세 미만인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분석 하였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가계총소득, 근로소득, 가계경상소득, 가계총지출의 항목에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두집단의 평균 가계총소득을 살펴보면, 노인가계는 1,590만원으로 1,988만원을 보인 비노인가계보다 적었으며 노인가계의 평균 가계총소득은 비노인가계 총소득의 약 69%정도를 차지하였고, 근로소득 역시 비노인가계가 유의하게 많은 소득액을 보였다. 한편 가계총소득액과 총지출액을 통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가계수지의 상대적 수준 측면으로 비교해본 결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는 흑자지표를 보였으며 비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의 규모가 노인가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성영애, 양세정(1997)은 통계청이 1994년에 실시한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가계와 60세 미만인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소비지출규모에 있어서

노인가계는 월평균 933,810원을 지출함으로써 1,139,143원을 지출하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적은 수치를 보였으며, 비노인가계에 비해 노인가계의 경우 교육·교양오락,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에서의 소비지출액도 적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보다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및 기타소비지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피복·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비지출이 노인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노인가계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별 소비지출탄력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는 필수적인 지출항목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보다 낮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경우는 비노인가계보다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력은 모든 비목에서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보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정빈, 김윤희(2000)는 1982년에서 1998년 까지의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가계와 60세 미만인 비노인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1982-1998년 기간동안 노인가계의 총소득액은 약 2.3배, 비노인가계는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인 17년동안 경제적 성장에 따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꾸준히 소득이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의 기복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소득은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은 1982-1998년 기간동안 약 2.2배, 비노인가계는 약 2.3배 증가하여 유사한 증가수준을 보였고 노인가계는 전반적으로 비노인가계에 비해 매우 불규칙적인 증감현상을

나타냈다. 소비지출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구성비 중 조사대상기간 17년 동안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에서 다같이 증가를 보인 비목은 외식비, 광열수도비, 기타소비지출이었다. 또한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비목은 보건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2002)은 통계청에서 발행되는 2000년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60세 미만 연령인 일반가계, 60세 이상의 일반노인 가계 및 빈곤노인 가계를 비교분석하여 소득과 지출구조를 분석하였다. 노인가계의 경우 소득 하위 40%이하에 73.4%의 분포를 나타내에 노인단독 가계의 대부분이 빈곤계층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소득구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빈곤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득 851,181원, 경상소득 758,522원으로 일반가계(총소득 3,126,203원, 경상소득 2,768,107원)나 일반 노인가계(총소득 2,690,618원, 경상소득 2,438,936원)에 비하여 소득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구조적으로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에 의한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지출의 수준은 빈곤노인 가계의 경우 일반가계(197,452원)나 일반 노인가계(1,796,127)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661,077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출비목별 소비지출의 경우 식료품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3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수적 성격에 해당되는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의 상대적 비중이 다른 가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생활의 질을 예측할 수 있었다.

Fareed & Riggs(1982)는 미국 전국규모 자료인 1972-73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를 통해 가장의 나이가 65세이상인 노인가계와 65세이하인 비노인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득, 가족수, 교육수준, 인종, 지역, 은퇴여부가 소비지출중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교통비, 의료비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 모두 총 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에서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에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지출 비목별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가계가 갖는 특성에 따른 소비행동 패턴 비교에서 비노인가계가 노인가계보다 주거비와 교통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며, 식료품비와 의복비는 동등하게 그리고 의료비는 더 적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가계가 갖는 특성이 달라지면 각 가계의 소비행동 패턴도 달라짐을 시사하였다.

Young Sook Chung & Frances(1992)는 1986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를 통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빈곤상태에 따른 소비패턴을 살펴보았다. 빈곤상태를 상, 중, 하로 나누고 비노인층에서도 상, 중, 하로 나누어서 군집분석을 통해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노인과 비노인, 노인의 빈곤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두 집단의 전체적인 소득 계층에 따라서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정(1998)은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을 비교분석 하였다. 은퇴 노인가계의 연평균 가계소득액은 1,175만원으로 취업가계의 1,578만원 보다 적어 은퇴한 노인가계의 소득력 하락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은퇴 노인가계가 취업 노인가계 근로소득의 약1/2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비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은퇴 노인가계의 소득액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을 살펴보면 세부지출비목에서 피복 및 신발비와 교양오락비, 교육비, 전기통신 및 연료비는 취업노인가계가 은퇴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은 지출액을 보였다. 반면, 의료비의 경우는 은퇴한 노인가계가 65만원으로 49만원을 보인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 성영애(2001)는 통계청이 1996년에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계를 취업여부별 및 단독가계, 부부가계, 자녀동거가계 등 가구구성형태별로 나누어 가계경제구조를 비교분

석 하였다. 우선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의 소득규모 및 원천을 비교한 수치에서는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의 총가계소득이 유의미하게 더 적었으며, 소득원천별 규모를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업소득은 더 적은 반면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비노인가계가 월평균 413,966원을 지출함으로써 노인가계의 390,283원에 비해 많았다. 노인가계는 식료품비 지출을 많이 하는 반면, 비노인가계는 외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를 비교한 경우에는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수준은 취업노인가계의 반도 못 미치는 40.2%수준이었으며, 취업노인가계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규모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비교에서는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는 총소비지출규모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거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 하고 모든 비목에서 취업가계의 지출규모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의 비교에서는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소득규모 및 구조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총가계소득이 자녀동거인 노인가계가 가장 많았고, 부부노인가계, 단독노인가계의 순서로 나타났듯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순서도 자녀동거노인가계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재산소득, 부업소득, 이전소득은 부부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별 소비지출의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총소비지출의 규모는 자녀동거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단독노인가계의 순으로 높았는데, 모든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는 부부노인가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동거노인가계, 단독노인가계의 순이었다.

이선형, 김근홍(2003)은 1999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부부가계만을 대상으로하여 노인부부가계, 건강상태, 취업여부, 생활수준에 따른 가계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집단 모두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와 취업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이 좋은 가계의 경우 식료품비와 주거비,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가계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부부가계는 전체도시 근로자가계들에 비하여 교육비, 교통통신비,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적고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희숙·신상미(2003)은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여 취업노인가계와 비교분석 하였다. 노동패널 4차년도(2000년)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과 1인당 소득은 취업노인가계의 58.9%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유형 중 이전소득은 연평균 256만3천원과 37.1%의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인 반면, 취업노인가계는 연평균 47만1천원과 4.0%의 낮은 구성비율을 나타내어 은퇴노인가계의 상대적인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하였다. 총소비지출 수준에서는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인당 지출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식비 비중은 양쪽가계 모두 하위 지출비목 중 1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특히 은퇴노인가계의 식비비중 즉, 앵겔계수는 41.9%로 나타났다.

Harrison(1986)은 1984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층의 연령을 65-74세 집단과 75세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의 특성과 소비패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에 따른 소비패턴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로 비슷하였으며 외식비, 교통비, 오락비, 보험비, 의복비는 65-74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

거비와 의료비는 7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Hitschler(1993)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연령을 65-74세 집단과 75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 1980년과 1990년 10년동안의 노인가계 소비지출규모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 주거비의 비율이 1980년과 1990년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보다는 1990년대의 소비지출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포괄하는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연령별, 동거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들 집단을 비교하고자 한다.

노인가계의 연령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60-64세의 초기노인가계, 65-70세의 중기노인가계, 70세 이상의 후기노인가계로 분류하였으며,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차이가 노인가계 자신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다른 가구원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노인가구를 다음과 같이 동거 유형에 따른 6개 집단으로 세분화 하여 분류하였다. 즉,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친척으로 구성된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원으로 구성된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원으로 구성된 남성노인가계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노인가계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 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2004년에 실시한 가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다. 가계조사는 60여 년간 도시지역의 비농가만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되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 지역의 2인 이상 비농가 까지 확대하여 전국가계조사로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7대 도시와 각 도의 동부와 읍면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각 층별로 구해진 표본 수 만큼을 크기에 비례하는 비율로 추출하는 방법인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추출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수집하고 있으며, 농(림)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 가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표본가구에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하였으며, 2004년 조사 가구 수는 24,998가구이다(통계청, 2004).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주 가계를 추출한 결과, 12,143 가계가 연구대상으로 표집 되었다. 본 연구에서 60세 이상을 노인가계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회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60세이상을 노인층으로 나누는 기준을 삼고 있으며(통계청, 2005) 사회적으로도 퇴직 정년을 정하는 기준으로 60세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고철기 등, 1992)이 있기 때문이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4년 가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경제적 변수와 소비지출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노인가계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초기노인 집단(60-64세), 중기노인집단(65-70세), 후기노인집단(70세이상) 과 동거유형에 따라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친인척으로 구성된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가구원으로 구성된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가구원으로 구성된 남성노인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구조와 관련한 소득, 대출액, 소비지출 변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1> 노인가계의 동거유형

구분 동거유형	동거유형 구분
노인부부가계	60세 이상 가구원으로써 가구원 수가 2명인 노인부부만이 사는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인 자녀만이 함께 사는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노인부부 + 기혼자녀, 노인부부 + 기혼자녀 + 손자녀, 노인부부 + 기혼자녀 + 미혼자녀, 노인부부 + 기혼자녀 + 미혼자녀 + 손자녀, 이상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가계
친척노부부가계	노인부부가 노인부부의 부모, 조부모, 미혼인 형제 자매, 기타친인척등과 함께 사는 경우로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가계(자녀와 손자녀는 제외함)
여성노인가계	여성노인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경우로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인 가계(예: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 가구주 + 자녀 친척 손자녀...)
남성노인가계	남성노인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경우로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인 가계(예: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 가구주 + 자녀 친척 손자녀...)

1)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는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택소유여부 등 총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이하, 초·대졸이상으로 나누어 가변수로 측정하였고, 직업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구분하여 가변수 처리하였으며, 주택소유여부는 소유와 비소유로 나누어 가변수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2) 조사대상가계의 경제적 특성: 소득, 대출액, 소비지출변수

조사대상가계의 소득관련 변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포함하고, 이들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출액은 부동산관계빌린돈, 월부 및 외상, 기타빌린돈을 모두 합한 합계로 구성하였다.

소비지출의 경우 총소비지출 분석과 함께 세부지출비목별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때 세부지출비목은 원자료의 지출비목인 10대 비목을 사용하되 다음과 같이 식료품비에서 외식비를 분리하여 11개 세부비목을 분석기준으로 하였다.

- 식료품비: 곡물 및 식빵, 육류, 낙농품, 어개류, 채소해조류, 과실류, 유지 및 조미료, 차음료 및 주류, 기타식료품
- 외식비: 식사대, 음주대
- 주거비: 월세, 주택설비 및 수선비, 수선재료, 기타주거
- 광열수도: 수도료, 전기료, 연료
- 가구집기가사용품: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가사서비스
- 피복 및 신발: 외의, 내의, 기타피복, 신발 등

-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 교육: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
- 교양오락: 서적 및 인쇄물, 교양오락용품기구, 교양오락서비스
- 교통통신: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 기타소비지출: 담배, 이미용, 화장품, 장신구, 경조비, 종교관계비 등

4. 자료분석방법

통계청의 2004 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한 본 연구는 분석목적에 맞게 SPSS WIN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행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가계 노인가계의 연령대와 동거유형별에 따른 경제구조현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 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가계의 구성비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구성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과 <표3>에서 제시하고 있다.

노인가계의 연령별 빈도분포는 <표2>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조사대상자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계로서, 총 12,143 가구로 그 중 60세-64세에 해당하는 초기노인가계가 총 4,926가구로 전체 노인가구 중 40.6%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65세-69세인 중기노인가계가 30.2%, 70세 이상인 후기노인가계가 29.2%를 차지하여 역연령에 따른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2> 노인가계의 연령별 빈도

(n=12,143)

연령구분 빈도(%)	초기 노인가계	중기 노인가계	후기 노인가계
	(60세-64세)	(65세-69세)	(70세이상)
	4926 (40.6)	3671 (30.2)	3546 (29.2)

조사대상자의 동거유형별 빈도는 <표3>에서 제시하고 있다. 동거유형별 노인가계의 빈도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가 총55%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로 19%를 차지하였으며, 여성노인가계가 14%, 노인자녀동거가계가 5%, 친척노부부가계가 3%, 남성노인가계가 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빈도

(n=12,143)

연령 가계유형	초기노인가계 (60세-64세) 빈도수(%)	중기노인가계 (65세-69세) 빈도수(%)	후기노인가계 (70세이상) 빈도수(%)	합계(%)
노인부부가계	2,220 (18.3)	1,987 (16.4)	2,401 (19.8)	6,608 (54.5)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1,277 (10.5)	521 (4.3)	213 (1.8)	2,011 (16.6)
노인자녀 동거가계	532 (4.4)	384 (3.2)	369 (3.0)	1,285 (10.6)
친척노부부 가계	186 (1.5)	117 (1.0)	17 (0.1)	320 (2.6)
여성노인가계	565 (4.7)	587 (4.8)	483 (4.0)	1,635 (13.5)
남성노인가계	146 (1.2)	75 (0.6)	63 (0.5)	284 (2.3)
전체가계	4,926 (40.6)	3,671 (30.2)	3,546 (29.2)	12,143 (100)

2.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가계의 연령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4>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전체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79%로 세 집단 모두 남성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다수의 가구주 성별이 남성임을 알 수 있다. 학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집단별 학력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중졸이하가 60.5%로 과반수를 넘는 분포를 보여 노인가계의 경우 대다수가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대졸 이상의 분포는 비교적 연령이 낮은 초기노인가계 집단이 5.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의 비율이 전체가계의 4.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들 노인연령 집단별 학력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주택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주택소유율이 80.7%에 달해 대다수의 노인가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노인가계가 주택소유에 따른 재산소득을 취득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노인연령 집단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4> 노인가계의 연령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n=12,143, 단위: 빈도, %)

변수	구분	초기노인가계 (60세-64세)	중기노인가계 (65세-69세)	후기노인가계 (70세이상)	카이(χ^2)값
가구주 성별	여자	1,072 (8.8)	810 (6.7)	674 (5.6)	12.681 **
	남자	3,854 (31.7)	2,861 (23.6)	2,872 (23.7)	
교육 수준	중졸이하	2,862 (23.6)	2,112 (17.4)	2,363 (19.5)	160.723 ***
	고졸이하	1,362 (11.2)	1,007 (8.3)	651 (5.4)	
	초·대졸이상	689 (5.7)	518 (4.3)	476 (3.9)	
직업	전문직	322 (2.7)	116 (1.0)	60 (0.5)	134.897 ***
	비전문직 (무직포함)	4,604 (37.9)	3,555 (29.3)	3,486 (28.7)	
주택 소유	소유	4,164 (34.3)	2,866 (23.6)	2,773 (22.8)	77.009 ***
	비소유	762 (6.3)	805 (6.6)	773 (6.4)	

* p < .05, ** p < .01, *** p < .001

조사대상 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으며,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5>, <표6>, <표7>에서 제시하고 있다.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5>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택소유여부 모두 동거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가구주의 성별을 제시한 것으로 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거유형 구분에 따른 6개 집단 모두 중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학력수준은 그리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대졸이상의 학력비율이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부부가계의 학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무직을 포함한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노인부부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척노부부 가계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n=4,926, 단위: 빈도, %)

변수	구분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 노부부 가계	여성 노인가계	남성 노인가계	카이(x ²)값
가구주 성별	여자	356 (7.2)	93 (1.9)	52 (1.1)	6 (0.1)	565 (1.5)	0 (0)	2354.301 ***
	남자	1,864 (37.8)	1,184 (24.0)	480 (9.7)	180 (3.7)	0 (0)	146 (3.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18 (26.8)	642 (13.0)	329 (6.7)	58 (1.2)	448 (9.1)	67 (1.4)	234.504 ***
	고졸 이하	580 (11.8)	435 (8.8)	126 (2.6)	76 (1.5)	91 (1.8)	54 (1.1)	
	초·대졸 이하	309 (6.3)	200 (4.1)	77 (1.6)	52 (1.1)	26 (0.5)	25 (0.5)	
직업	전문직	184 (3.7)	80 (1.6)	30 (0.6)	0 (0)	26 (0.5)	2 (0)	34.855 ***
	비전문직 (무직포 함)	2,036 (41.3)	1,197 (24.3)	502 (10.2)	186 (3.8)	539 (10.9)	144 (2.9)	
주택 소유	소유	1,857 (37.7)	1,092 (22.2)	500 (10.2)	160 (3.2)	425 (8.6)	130 (2.6)	78.664 ***
	비소유	363 (7.4)	185 (3.8)	32 (0.6)	26 (0.5)	140 (2.8)	16 (0.3)	

* p < .05, ** p < .01, *** p < .001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6>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택소유여부 모두 동거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성별은 가구주의 성별을 제시한 것으로 초기노인가계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거유형 구분에 따른 6개 집단 모두 중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학력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대졸 이상의 학력비율이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의 경우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무직을 포함한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노인부부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계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n=3,671, 단위: 빈도, %)

변수	구분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 노부부 가계	여성 노인가계	남성 노인가계	카이(χ^2)값
가구주 성별	여자	161 (4.4)	31 (0.8)	31 (0.8)	0 (0)	587 (16.0)	0 (0)	2475.347 ***
	남자	1,826 (49.7)	490 (13.3)	353 (9.6)	117 (3.2)	0 (0)	75 (2.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29 (28.0)	279 (7.6)	212 (5.8)	50 (0.4)	507 (13.8)	35 (1.0)	329.622 ***
	고졸 이하	611 (16.6)	176 (4.8)	117 (3.2)	48 (1.3)	38 (1.0)	17 (0.5)	
	초·대졸 이하	331 (9.0)	66 (1.8)	55 (1.5)	19 (0.5)	24 (0.7)	23 (0.6)	
직업	전문직	87 (2.4)	23 (0.6)	6 (0.2)	0 (0)	0 (0)	0 (0)	40.943 ***
	비전문직 (무직포함)	1,900 (51.8)	498 (13.6)	378 (10.3)	117 (3.2)	587 (16.0)	75 (2.0)	
주택 소유	소유	1,555 (42.4)	456 (12.4)	335 (9.1)	97 (2.6)	393 (10.7)	30 (0.8)	153.585 ***
	비소유	432 (11.8)	65 (1.8)	49 (1.3)	20 (0.5)	194 (5.3)	45 (1.2)	

* p < .05, ** p < .01, *** p < .001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7>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택소유여부 모두 동거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중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성별은 가구주의 성별을 제시한 것으로 초기, 중기노인가계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와 친척노부부가계의 경우 여성노인가구주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거유형 구분에 따른 6개 집단 모두 중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학력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졸이상의 학력비율이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계의 경우 초기, 중기노인가계의 경우와는 달리 초·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무직을 포함한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노인부부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모두 종합해본 결과 노인가계는 전반적으로 중졸이하의 학력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초·대졸이상의 경우 노인부부가계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사회적 자립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직업의 경우 무직을 포함한 비전문직 종사자가 전문직 종사자 보다 모든 집단에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주택소유는 초기, 중기, 후기 동거유형별 가계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으며, 노인부부가계의 주택소유율이 초기, 중기, 후기 집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주택소유율은 부동산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와 같은 재산소득의 취득을 겨냥 할 수 있다. 또한, 동거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에서는 교육수준, 전문

직 비율, 주택소유 여부 등이 다른 유형의 가계들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가계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주택소유율이 높을수록 타 가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자립도가 높음을 유추 할 수 있다.

<표7>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n=3,546, 단위: 빈도, %)

변수	구분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 노부부 가계	여성 노인가계	남성 노인가계	카이(x^2)값
가구주 성별	여자	187 (5.3)	0 (.0)	4 (0.1)	0 (.0)	483 (13.6)	0 (.0)	2400.190 ***
	남자	2,214 (62.4)	213 (6.0)	365 (10.3)	17 (0.5)	0 (.0)	63 (1.8)	
교육 수준	무학	43 (1.2)	13 (0.4)	0 (.0)	0 (.0)	0 (.0)	0 (.0)	434.440 ***
	중졸 이하	1,507 (42.5)	116 (3.3)	185 (5.2)	17 (0.5)	478 (13.5)	60 (1.7)	
	고졸 이하	515 (14.5)	17 (0.5)	111 (3.1)	0 (.0)	5 (0.1)	3 (0.1)	
	초·대졸 이하	336 (9.5)	67 (1.9)	73 (2.1)	0 (.0)	0 (.0)	0 (.0)	
직업	전문직	74 (1.3)	0 (.0)	13 (0.4)	0 (.0)	0 (.0)	0 (.0)	21.810 ***
	비전문직 (무직포 합)	2,354 (66.4)	213 (6.0)	356 (10.0)	17 (0.5)	483 (13.6)	63 (1.8)	
주택 소유	소유	1,916 (54.0)	183 (5.2)	309 (8.7)	17 (0.5)	307 (8.7)	41 (1.2)	89.506 ***
	비소유	485 (13.7)	30 (0.8)	60 (1.7)	0 (.0)	176 (5.0)	22 (0.6)	

* p < .05, ** p < .01, *** p < .001

3. 조사대상 가계의 경제구조 차이 검증

조사대상 가계의 연령과, 동거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과 부채유입액, 지출비목별 소비지출변수를 나누어 변수를 소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경제구조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1)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가계 경제 수지 차이 검증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 검증의 분석결과는 <표8>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가계의 경제구조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관련변수와 대출액 변수로 나누어 변수를 소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노인연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득은 초기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소득과 비경상소득, 부채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초기에서 후기 집단으로 갈수록 소득원이 줄어드는 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역할기능의 약화로 인한 현상으로 노인가계의 적극적인 노후준비 필요성이 요구된다. 근로소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총 평균 1,659천원으로 다른 소득변수들 보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노인가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지만, 전체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1/3 수

준으로 그 수가 적어 노인가계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한 근로소득의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사업소득은 한 달 평균 679천원으로 나타난 중기노인가계에서 그 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소득은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나 역 연령에 따른 고른 분포를 나타내지 않았다. 재산소득의 경우 세 집단의 월평균 합계액이 608천원으로 소득원천별 규모로 보았을 때 근로소득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한 소득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전소득은 초기노인가계가 65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천별 규모로 보았을 때 이전소득의 월평균 합계액이 560천원으로 재산소득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 노인가계에서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변수와 대출액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연정(1998)이 1994년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총소득,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연정(1998)의 연구에서도 노인가계에서의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노후의 소득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취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8> 노인가계의 연령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수	초기노인가계 (60세-64세) n=4,926	중기노인가계 (65세-69세) n=3,671	후기노인가계 (70세이상) n=3,546	합계	F 값
총소득	n=2,094 2,526 c	n=988 1,854 b	n=312 1,096 a	n=3,394 2,199	105.547***
근로소득	n=2,076 1,954 c	n=982 1,337 b	n=293 647 c	n=3,351 1,659	133.959***
사업소득	n=440 459 c	n=219 679 b	n=69 194 a	n=728 500	12.700***
재산소득	n= 240 700 a	n= 109 395 a	n= 33 640 a	n=382 608	4.478*
이전소득	n=1,172 652 b	n=640 427 a	n=225 455 a	n=2,037 560	19.499***
비경상 소득	n=1221 317 a	n=557 256 a	n=177 211 a	n=1955 290	1.895
대출액	n=590 790 a	n=200 591 a	n=33 321 a	n=823 723	0.597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주1)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대출액=(부동산관계빌린돈+월부 및 외상+기타빌린돈)

2)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 검증

노인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 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9>, <표 10>,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가계의 경제구조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관련변수와 대출액변수로 나누었으며, 변수를 소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가계 경제수지 차이 검증

<표9>에 제시된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득은 친척노부부가계가 월 평균 4,11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노인자녀 동거가계, 남성노인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총소득을 나타냈다. 친척노부부가계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총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가구원이 아닌 타가구원으로 부터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으며, 노인부부가계에서 총소득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가계들보다 경제활동인구 수가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부부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은 친척노부부가계가 월 평균 3,13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근로소득을 나타냈다. 사업소득은 남성노인가계가 월 평균 1,60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친척노부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사업소득을 나타냈다. 재산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척노부부,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적은 재산소득을 나타냈다.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가계, 친척노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가계에서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부부 가계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합계	F 값
총소득	n=868 1,770 a	n=586 3,263 c	n=267 3,256 c	n=60 4,115 d	n=244 2,270 b	n=69 2,483 b	n=2,094 2,526	55.056 ***
근로소득	n=855 1,312 a	n=583 2,610 c	n=265 2,356 c	n=60 3,135 d	n=244 1,949 b	n=69 1,820 b	n=2,076 1,954	57.174 ***
사업소득	n=164 154 a	n=147 390 a	n=76 1,214 b	n=7 436 a	n=35 179 a	n=11 1,606 c	n=440 459	38.061 ***
재산소득	n=100 430 ab	n=56 1,317 c	n=36 583 ab	n=26 982 bc	n=11 221 a	n=11 219 a	n=240 700	7.064 ***
이전소득	n=504 614 ab	n=312 794 bc	n=163 612 ab	n=42 545 ab	n=115 415 a	n=36 1,025 c	n=1,172 652	5.197 ***
비경상 소득	n=564 276 a	n=314 402 a	n=158 344 a	n=35 447 a	n=122 246 a	n=28 165 a	n=1,221 317	1.039
대출액	n=205 741 a	n=202 678 a	n=74 1,255 a	n=28 1,606 a	n=75 507 a	n=6 252 a	n=590 790	0.812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주1)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대출액=(부동산관계빌린돈+월부 및 외상+기타빌린돈)

(2)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표10>에 제시된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총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월 평균 총소득 3,04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친척노부부, 여성노인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적은 총소득을 나타냈다. 근로소득은 월 평균 2,649천원인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혼자녀와 미혼자녀, 친척노부부, 남성노인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낮은 근로소득을 나타냈다. 사업소득은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노인가계 수가 단 2 가구로 극 소수인 경우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노인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가계, 친척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가계,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가계에서는 재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계,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적은 이전소득을 나타냈다.

<표10>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부부 가계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합계	F 값
총소득	n=446 1,338 a	n=212 3,043 d	n=108 2,464 c	n=37 1,861 b	n=139 1,403 a	n=46 1,309 a	n=988 1,854	80.609***
근로소득	n=440 920 ab	n=212 2,649 d	n=108 1,307 c	n=37 1,231 c	n=139 765 a	n=46 1,158 bc	n=982 1,337	138.422***
사업소득	n=68 99 a	n=56 475 ab	n=50 1,227 bc	n=2 90 a	n=41 1,243 bc	n=2 1,400 c	n=219 679	26.202***
재산소득	n=41 426 b	n=11 528 b	n=17 516 b	n=27 359 b	n=13 101 a	.	n=109 395	3.027*
이전소득	n=310 465 b	n=100 268 ab	n=68 199 c	n=23 308 ab	n=68 218 ab	n=17 116 a	n=640 427	8.209***
비경상 소득	n=271 264 a	n=110 306 a	n=68 199 a	n=23 308 a	n=68 218 a	n=17 116 a	n=557 256	1.004
대출액	n=31 414	n=104 589	n=23 743	n=1 100	n=30 831	n=11 172	n=200 591	0.158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주1)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대출액=(부동산관계빌린돈+월부 및 외상+기타빌린돈)

(3)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표11>에 제시된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재산소득과 비경상소득, 대출액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기노인가계의 경우 소득변수와 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친척노부부가계와 남성노인가계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연구하였다. 총소득의 경우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노인가계가 총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가 월 평균 1,08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득과 마찬가지로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근로소득을 나타냈으며 이 또한 초기노인가계에서의 노인부부가계의 경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사업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노인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소득 규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가구원이 아닌 타가구원으로 부터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노인부부가계는 소득 규모가 대부분의 변수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가계들보다 경제활동인구 수가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의 소득 지원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부부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
부노인가계와 자녀동거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규모 및 구조를 비교한 성영
애, 양세정(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11>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여성노인 가계	합계	F 값
총소득	n=171 946 a	n=54 1,447 b	n=42 1,356 b	n=45 1,004 a	n=312 1,096	8.996***
근로소득	n=159 527 a	n=54 1,085 b	n=35 669 a	n=45 530 a	n=293 647	16.666***
사업소득	n=48 45 a	n=4 1,000 c	n=15 421 b	n=2 450 b	n=69 194	19.344***
재산소득	n=17 611	n=8 650	n=7 792	n=1 500	n=33 640	1.170
이전소득	n=127 451 b	n=23 172 a	n=38 553 b	n=37 546 b	n=225 455	3.403*
비경상 소득	n=90 221 a	n=32 211 a	n=26 235 a	n=29 155 a	n=177 211	0.532
대출액	n=14 349 ab	n=6 111 a	n=8 181 a	n=5 720 b	n=33 321	2.455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주1)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대출액=(부동산관계빌린돈+월부 및 외상+기타빌린돈)

3)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노인 연령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의 규모 분포를 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육비, 외식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지출 규모를 보였다. 총소비지출은 초기노인가계에서 월 평균 1,631,45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이 초기노인가계에서 후기노인가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식료품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소비지출에서도 초기노인가계에서의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기노인가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규모를 나타내어 노인가계의 앵겔계수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성영애, 양세정(1997), 김연정(1998), 이희숙, 신상미(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육비의 경우 초기노인가계에서 월평균 220천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비교적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교육

비 보조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사교육비 증가현상과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주거비의 경우 노인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후기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내 다른 지출변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주거비는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초기노인가계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는 또한 월세, 주택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필수재적인 성격을 띄며 후기노인가계로 갈수록 지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비 또한 노인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인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의 높은 연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가계에서의 의료비 부담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의희숙, 신상미(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표12> 노인가계의 연령별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수	초기노인가계 (60세-64세)	중기노인가계 (65세-69세)	후기노인가계 (70세이상)	합계	F 값
총소비지출	n=4,926 1,631 c	n=3,671 1,356 b	n=3,546 989 a	n=12,143 1,360	189.958 ***
식료품비	n=4,926 479 c	n=3,671 405 b	n=3,546 307 a	n=12,143 406	325.484 ***
외식	n=4,477 190 c	n=3,117 143 b	n=2,547 79 a	n=10,141 148	259.313 ***
주거비	n=2,604 100 a	n=1,821 103 a	n=1,525 101 a	n=5,950 101	0.036
광열·수도비	n=4,886 98 c	n=3,632 86 b	n=3,524 73 a	n=12,042 87	102.812 ***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n=4,260 69 b	n=3,086 57 ab	n=2,785 46 a	n=10,131 59	5.787 **
피복·신발비	n=3,566 103 c	n=2,333 87 b	n=1,964 62 a	n=7,863 62	27.958 ***
보건의료비	n=3,985 130 a	n=3,114 143 a	n=3,131 138 a	n=10,230 137	1.112
교육비	n=934 220 b	n=791 161 a	n=660 171 ab	n=2,385 187	3.357 *
교양·오락비	n=4,886 75 c	n=3,631 56 b	n=3,448 35 a	n=11,965 58	38.222 ***
교통·통신비	n=4,925 279 c	n=3,664 189 b	n=3,542 100 a	n=12,131 199	114.522 ***
기타	n=4,880 368 c	n=3,629 313 b	n=3,452 211 a	n=11,961 306	38.762 ***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4)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1)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비지출의 경우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에서 월 평균 2,15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척노부부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남성노인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규모를 나타냈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은 소비지출 규모를 보여 노인가계의 앵겔지수가 높음을 시사하였으며 그중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계에서 가장 많은 식료품비를 지출하였다. 외식비의 경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의 경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열수도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및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는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출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보건의료, 주거, 외식,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는 가구

원 수가 2명인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출 규모의 정도가 다른 가계들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교육, 외식, 보건의료, 피복및신발, 교양오락,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자녀동거가계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외식, 교육, 광열수도, 보건의료,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및신발, 주거비 순으로 비중이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낮은 지출비중을 나타냈다. 친척노부부가계에서는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육, 교통통신, 외식, 보건의료,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 순으로 그 비중이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여성노인가계의 경우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육, 교통통신, 외식, 보건의료, 피복및신발, 주거, 광열수도, 교양오락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남성노인가계 경우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타 집단과는 달리 교통통신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소비지출, 외식, 광열수도, 보건의료, 피복및신발, 교양오락,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에서 가장 낮은 지출비중을 보였으며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노인부부가계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13>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부부 가계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합계	F 값
총소비지출	n=2,220 1,326 a	n=1,277 2,158 d	n=532 1,838 bc	n=186 1,967 cd	n=565 1,324 a	n=146 1,662 b	n=4,926 1,631	42.586 ***
식료품	n=2,220 366 a	n=1,277 642 d	n=532 598 cd	n=186 517 b	n=565 402 a	n=146 579 c	n=4,926 479	131.644 ***
외식	n=1,880 108 a	n=1,245 299 d	n=505 220 c	n=178 197 c	n=527 159 b	n=142 326 d	n=4,477 190	116.273 ***
주거	n=1,241 109 a	n=601 96 a	n=303 91 a	n=82 91 a	n=293 95 a	n=84 65 a	n=2,604 100	0.348
광열수도	n=2,201 83 a	n=1,271 113 bc	n=524 123 c	n=186 121 c	n=560 84 a	n=144 108 b	n=4,886 98	40.121 ***
가구집기 가사용품	n=1,879 56 a	n=1,122 79 ab	n=495 117 b	n=157 66 ab	n=470 53 a	n=137 41 a	n=4,260 69	2.889 *
피복및 신발	n=1,434 77 a	n=1,022 138 b	n=419 102 ab	n=131 100 ab	n=456 107 ab	n=104 88 a	n=3,566 103	8.527 ***
보건의료	n=1,795 133 a	n=1,033 146 a	n=426 117 a	n=173 132 a	n=451 109 a	n=107 103 a	n=3,985 130	0.653
교육	n=146 38 a	n=247 381 bc	n=264 136 a	n=60 494 c	n=197 204 ab	n=20 13 a	n=934 220	9.668 ***
교양오락	n=2,189 57 a	n=1,276 113 b	n=525 86 ab	n=186 52 a	n=564 57 a	n=146 68 a	n=4,886 75	9.361 ***
교통통신	n=2,219 215 ab	n=1,277 402 c	n=532 288 abc	n=186 325 bc	n=565 203 a	n=146 383 c	n=4,925 279	12.003 ***
기타	n=2,196 338 a	n=1,273 472 b	n=520 348 a	n=186 501 b	n=559 240 a	n=146 305 a	n=4,880 368	8.808 ***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2)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노인자녀동거가계가 가장 많은 소비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친척노부부가계, 남성노인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지출규모를 나타냈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와 광열수도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집기 가사용품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피복및신발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교양오락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및 미혼자녀 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출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의 경우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 교통통신, 주거, 외식,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교양오락, 가구집기가사용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교육, 외식, 보건의료, 피복및신발, 광열수도, 주거,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노인자녀동거가계는 앞선 두 집단과 마찬가지로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외식, 교육, 보건의료, 주거, 피복및신발,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친척노부부가계 또한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외식, 가구집기가사용품, 광열수도, 보건의료, 피복및신발, 주거,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계와 같이 교육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여성노인가계는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육, 교통통신, 외식, 주거, 보건의료,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남성노인가계는 다른 집단과 달리 기타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식료품, 보건의료, 교통통신, 외식, 피복및신발, 주거, 교육, 광열수도,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에서 가장 적은 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표14>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부부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합계	F 값
총소비지출	n=1,987 1,143 a	n=521 1,741 bc	n=384 1,955 c	n=117 1,738 bc	n=587 1,243 a	n=75 1,562 b	n=3,671 1,356	41.657***
식료품	n=1,987 347 a	n=521 550 c	n=384 551 c	n=117 487 b	n=587 365 a	n=75 395 a	n=3,671 405	71.223***
외식	n=1,556 82 a	n=502 269 d	n=377 205 c	n=105 183 c	n=509 144 b	n=65 171 bc	n=3,117 143	116.373***
주거	n=1,021 92 a	n=261 96 a	n=178 141 a	n=46 76 a	n=264 136 a	n=51 81 a	n=1,821 103	1.492
광열수도	n=1,972 75 ab	n=521 105 c	n=380 114 c	n=115 103 c	n=569 84 b	n=75 63 a	n=3,632 86	28.843***
가구집기 가사용품	n=1,656 45 a	n=434 60 a	n=342 91 ab	n=105 138 b	n=475 52 a	n=74 57 a	n=3,086 57	4.049**
피복및 신발	n=1,179 75 a	n=371 108 ab	n=271 125 b	n=82 79 a	n=403 78 a	n=27 94 ab	n=2,333 87	6.795***
보건의료	n=1,717 150 ab	n=415 127 ab	n=344 155 ab	n=101 103 a	n=481 129 ab	n=56 185 b	n=3,114 143	1.078
교육	n=143 14 a	n=80 272 c	n=267 167 abc	n=14 67 ab	n=253 219 bc	n=34 69 ab	n=791 161	6.988***
교양오락	n=1,958 47 a	n=521 75 a	n=384 84 a	n=117 75 a	n=576 45 a	n=75 60 a	n=3,631 56	3.927**
교통통신	n=1,984 129 a	n=521 303 b	n=384 303 b	n=117 278 b	n=583 199 a	n=75 173 a	n=3,664 189	28.758***
기타	n=1,963 287 ab	n=521 386 bc	n=384 411 bc	n=117 489 cd	n=571 200 a	n=73 567 d	n=3,629 313	9.510***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3)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초기노인가계와 중기노인가계에서와는 달리 보건의료비의 경우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와 기타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비지출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월 평균 1,528천원의 지출을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척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남성노인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기노인가계에서와 같이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지출규모를 나타냈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식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주거비는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열수도비는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복및신발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비는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교육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통통신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소비지출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출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에서는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 주거, 교통통신,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외식, 가구집기가사용품,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에서 가장 낮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으며 노인부부가계는 초기,

중기, 후기집단 모두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는 식료품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 교통통신, 외식,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교양 오락, 교육, 주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에서 지출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가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다른 가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보건의료, 외식, 광열수도, 주거, 피복및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에서 가장 적은 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노인부부와 친척이 동거하는 친척노부부가계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식료품보다 높게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광열수도, 외식, 피복및신발,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에서 가장 낮은 소지비출 규모를 나타냈다. 여성노인가계는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교육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주거, 교통통신, 보건의료, 외식,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남성노인가계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양오락, 외식, 교통통신, 교육, 보건의료, 기타소비지출, 가구집기가사용품,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에서 가장 적은 지출비중을 나타내 다른 집단과는 다른 소비지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후기노인가계에서의 남성노인가계는 교양오락, 외식, 교통통신 등 사회활동을 위한 지출비의 비중이 높은 가계임을 알 수 있다.

<표15>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부부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합계	F 값
총소비지출	n=2,401 869 a	n=213 1,357 bc	n=369 1,528 c	n=17 1,357 bc	n=483 977 ab	n=63 1,134 ab	n=3,546 989	24.860 ***
식료품	n=2,401 279 a	n=213 404 bc	n=369 457 c	n=17 331 ab	n=483 279 a	n=63 371 b	n=3,546 307	51.732 ***
외식	n=1,551 55 a	n=192 134 cd	n=337 131 cd	n=17 113 bc	n=390 90 b	n=60 159 d	n=2,547 79	73.364 ***
주거	n=986 101 a	n=137 59 a	n=166 98 a	n=4 27 a	n=212 135 a	n=20 67 a	n=1,525 101	1.078
광열수도	n=2,396 66 a	n=213 79 a	n=369 115 b	n=17 131 b	n=470 68 a	n=59 87 a	n=3,524 73	30.961 ***
가구집기 가사용품	n=1,810 43 ab	n=195 39 ab	n=319 82 b	n=14 26 a	n=394 27 a	n=53 90 b	n=2,785 46	7.521 ***
피복및 신발	n=1,193 56 a	n=142 74 a	n=260 89 a	n=13 104 a	n=317 55 a	n=39 76 a	n=1,964 62	2.481 *
보건의료	n=2,138 136 a	n=182 232 a	n=334 135 a	n=17 363 a	n=419 105 a	n=41 105 a	n=3,131 138	5.531 ***
교육	n=163 10	n=43 69	n=228 264	n=1 3	n=200 226	n=25 118	n=660 171	8.334 ***
교양오락	n=2,320 25 a	n=213 73 b	n=368 49 ab	n=17 17 a	n=471 37 ab	n=59 173 c	n=3,448 35	20.313 ***
교통통신	n=2,397 67 a	n=213 192 bc	n=369 220 c	n=17 132 ab	n=483 122 ab	n=63 157 bc	n=3,542 100	32.881 ***
기타	n=2,334 213 a	n=208 275 a	n=356 228 a	n=17 272 a	n=475 171 a	n=62 103 a	n=3,452 211	0.636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가계를 연령과 동거유형별로 구분하여 경제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노인가계의 다양한 경제구조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을 분석할 수 있는 2004년도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가계구조를 소득 및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노인가계의 연령별, 동거유형별 경제구조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 검증의 분석결과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노인연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득은 초기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부채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중기노인가계에서 그 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통해 노인가계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노후의 소득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취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인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 검증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지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부채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는 소득 규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가구원이 아닌 타가구원으로 부터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노인부부가계는 소득 규모가 대부분의 변수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가계들보다 경제활동인구 수가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의 사적이전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부부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 연령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의 규모 분포를 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육비, 외식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지출 규모를 보였다.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규모를 나타내어 노인가계의 앵겔계수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의 경우 초기노인가계에서 월평균 220천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비교적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사교육비 증가현상과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비의 경우 노인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인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의 높은 연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가계에서의 의료비 부담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노인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기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은 소비지출 규모를 보여 노인가계의 앵겔지수가 높음을 시사하였으며 그 중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계에서 가장 많은 식료품비를 지출하였다. 외식비의 경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의 경우 노인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열수도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은 노인자녀 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및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노

인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는 친척 노부부가계에서 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는 노인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비는 노인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와 광열수도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피복및신발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비는 노인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교양오락비는 노인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 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는 노인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냈다.

후기노인가계는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초기노인가계와 중기노인가계에서와는 달리 보건의료비의 경우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와 기타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식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

다. 주거비는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열수도비는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복및신발은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비는 친척노부부가계에서 교육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통통신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소비지출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가계의 연령과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노인가계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득원은 근로소득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른 소비지출 규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유형에 따른 검증에서는 타 가구원의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노인부부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가계의 연령과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노년기를 맞게 될 중·장년층의 노후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올바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과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구조가 취약해 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생애주기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석 될 수 있으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중·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장려정책을 통한 노후보장 기반 모색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 욕구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하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제안한다.

둘째, 가계유형에 따라 각 가계의 경제구조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재정관리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계는 자신이 속한 가계의 경제적 취약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가계의 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수급정책의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가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노인가계의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인가계를 위한 경제적 수급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다양화되는 노인가계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공적차원에서의 연금 및 세제지원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노인가계의 연령과 동거유형에 따른 경제구조분석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규모의 자료를 이용해 노인의 연령대를 초기, 중기, 후기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동거유형에 따라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친척으로 구성된 친척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원으로 구성된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구주와 비노인가구원으로 구성된 남성노인가계의 6개 집단으로 노인가계를 세분화 하여 분류하여 경제구조의 차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노인단독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지 못했으며, 친척노부부가계와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계의 표본크기가 크지 않아 이들 가계가 가지는 경제구조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유형은 다양화되고 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가계를 연령

과 동거유형에 따라 세분화 하여 경제구조 차이를 분석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노인가계의 다양한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구조 분석의 연구가 가계경제학이나 소비자경제 분야에서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고철기·박능후·김성희·이경은(1992).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문일(1997), 노인의 경제적 복지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13(2), 191-223.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p57-67.

김영숙(2002), 도시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 일반가계, 일반노인가계 및 빈곤노인 가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3), 95-119.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 가정학회지, 36(10), 179-196.

김영숙(2002),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1(1) 59-74.

김은효(2007) 제도상으로 본 노인의 개념. 인터넷 법률신문, 2007, 09, 03일자 기사

모선희, 강지현(2002), 55세이상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박진영(2007),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25-44.

박능후·송미영(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6 봄호, 통권 31호, 7-26.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성영애·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6.

송순영(1999), 노인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9-09, 12.

성지미, 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p111-129.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양정선, 김영순(2004),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83-292.

오찬옥·양세화·양세정(2000),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0 겨울호, 47-60.

이영숙(2007), 노인의 취업성향에 관한 연구. -취업노인과 비취업노인의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85-298.

이선형·김근홍(2003), 노인 가계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6집, 43-60.

이희숙·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6.

임정빈·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소비지출비교: 1982~1998 -도시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윤정혜·김경자·성영애·손상희·양세정·이희숙·최현자(2001), 소비자 재무설계·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소비자학연구, 12(3), 89-108.

정순희·김현정(2001), 노인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간 비교분석. 노인복지연구, 2001 여름호, 129-151.

조동필·양세정(2002), 한국가계의 소득규모 및 구조 변화추이분석:1980년~2000년. 사회과학연구, 제15호, 별쇄본.

황은애, 이승신(1999),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8), 117-131.

김연정(1997),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 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우정(2005), 노인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희(2002), 도시 노인근로자가구의 가계구조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두섭(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강이주 외 2인(1999), 가계경제학의 이해. 학지사.

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2003), 가계경제분석. 신정출판사.

통계청(2004),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대전.

통계청(2004),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2004), 고령자통계

통계청(2005), 사회통계조사.

한국노년학회. <http://www.tkgs.or.kr>

Fareed, A.E. and Riggs, G.D.(1982). Old-young differences in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6(1), 152-160.

Harrison, B.(1986). Spending patterns of older person revealed in

expenditure survey. *Monthly Labor Review*, 109(10), 15-17.

Hitschler, P.B.(1993). Spending by older consumer - 1980 and 1990 compared. *Monthly Labor Review*, 116(5), 3-13.

Young sook chung and Frances, M.(1992). Poverty status and expenditure patterns: Comparison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6, 245-260.

Quinn, J.F.(1987).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Beware of the man. *Review of Income & Wealth*(March), 63-82.

Abstract

Economic 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Old Age Household Economies

Seo, Ji Soo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Korea entered into the Ageing Society, this research performs a multi comparison between the age of old households and the economic structure according to their accommodation type as well as analyzing the economical structural difference of each types based on the features of aged households. Thus, the paper classified the aged households into 3 groups according to their age distribution: initial-staged aged groups (60-64 years old), middle-staged aged groups (65-70 years old) and latter stage aged groups (over 70 years old). In addition, the different economical structure was analyzed using the 2004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aw data and aged households were classed into six major groups: aged couple household, aged couple and unmarried children household, aged children residential household, relative and aged couple household, aged women household and aged men household.

Through our research, the economic 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the

age of old households and accommodation type has shown as follow:

First, the economical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the age of old household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labor, business, property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according to each aged sample groups. However, the non-business income and liabilities didn'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in the analysis of different economic earnings and expenses of initial and middle-staged aged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ge distribution group has shown a disparity in the total, labor, business, property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according to each aged sample groups. However, the latter-staged aged household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otal, labor, business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Third,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expense provision and size of consumption,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and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other consumption expense variables.

Fourth,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size of consumption expense, the initial and middle-staged aged household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and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other consumption expense variables. However, the analysis of latter aged household ha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and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 variables. Noticeably,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expense of hygienics, which didn't appeared in the initial and middle-staged aged households.